

“상생에 진심”…나주 공공기관 ‘지역 발전 투자’ 전국 1위

지난해 지역 발전사업 실적 1조 1063억원…전체 35% 달해

지역우선구매·사업육성 등 노력…인재 채용 규모는 아쉬워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 투자 규모가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역 내 에너지밸리 조성 노력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사업비는 1조 1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2개 혁신도시 전체 지역 발전사업비(3조 1408억원)의 35.2%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남(7153억원), 대구(3536억원) 등 타지역 혁신도시 실적을 압도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의 지자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지역 발전사업 실적 및 올해 지

역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년 지역 발전사업비 항목으로 지역 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지역우선구매, 기타사업 등 7개 분야를 집계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지역산업 육성에 489억원을 투입했으며, 지역산업 육성 항목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53억원), 한전(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우선구매(9064억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역 발전사업비의 81.9%로 가장 높았다. 지역우선구매 사업비에서는 한전이 82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한전이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에 나주혁신산단,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광주 도청국가산단, 나주신도일반산단

을 포함하는 대형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들의 자재를 우선구매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채용 부문이 경기 악화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85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역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정리한 이전 공공기관들의 2025년 지역발전 추진 계획을 보면, 기관들은 올해 990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1162억원(10.5%) 감소한 규모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다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역시 지역발전 사업비를 줄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올해 역시 지역우선구매 항목이 9114억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사업(459억원), 지역산업육성(197억원), 유관기관협력(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KDN, 락드실즈 5년 연속 참가 ‘저력과시’

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규모인 47개 기관 170여명이 ‘한국-캐나다’ 연합팀으로 참여했다.

한전KDN은 “지난 5-9일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실즈 2025’에 5년 연속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락드실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며, 2010년부터 매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되고 있다. 락드실즈는 NATO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대응 협력강화를 위해 기술 훈련과 전략 훈련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훈련에는 40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했으며, 18개팀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한전KDN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보안에 있어 필수적인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 1분기 영업이익 3조7536억원…7분기 연속 흑자

지난해 대비 188.9%↑…2021년 이후 누적적자 30조9000억원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7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국제 연료 가격 안정과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전은 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24조224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순이익은 2조3617억원으로 296.3% 늘었다.

한전은 전기판매 수익의 경우 판매량은 0.5% 감소했지만, 판매 단가가 전년보다 5.3%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전기 판매 수익이 1조462억원(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고간 재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자회사 연료비는 1조1501억원 감소했고, 민간 발전사의 전력 구입비는 4461억원 줄었다.

한전은 “원전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감소했으며,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해 자회사 연료비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원가 이하 전기 공급으로 악화했던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한전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비 하락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원가 이하 공급 여파로 200조원대 부채가 누적돼 연간 4조원 안팎의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도 30조9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및 국제 연료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 “전기 사용 줄이고 에너지캐시백·경품 받으세요”

7월 13일까지 이벤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에는 한전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가 5월 기준 125만 호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가입 고객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한전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로봇청소기, 제습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

할 계획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년동안 평균 전력 사용량의 3% 이상을 절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절감률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 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가구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한전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중계기나 소형집모, 창고 등 주거용

이 아닌 장소는 신청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도 높이고 있다”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신청 바로가기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4개월 연속 감소

올해 1000명 이상 순유출…정주여건 부족 심각

빛가람혁신도시 거주 인구가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인구가 유입됐지만, 올해에만 1000명 이상이 순유출되면서 전체 거주 인구 수는 4만명 선마저 무너지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9212명으로 전월(3만 9303명) 대비 91명 감소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당초 인구 5만명을 목표로 계획된 계획도시로, 지난 2014년 도시 조성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 및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입이 잇따르며 인구 수가 지속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한 뒤, 9개월 연속 인구 순유입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인

구 수 4만 38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1-4월 내내 인구가 순유출되면서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3월에는 나주 송월동 자이리버파크 대규모 이전으로 인해 빛가람혁신도시 인구가 두달 새 1083명이나 순유출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역시 빛가람동에서 송월동으로의 전출은 154명이나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민들은 빛가람혁신도시를 떠나는 이유로 한결같이 정주여건 부족 문제를 꼽았다.

5년째 빛가람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민희(여·42)씨는 “이 도시는 걸로 보기에 깔끔하고 좋아보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며 “주말마다 장을 보러 나주 구도심 소재 대형마트로 가야하고,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